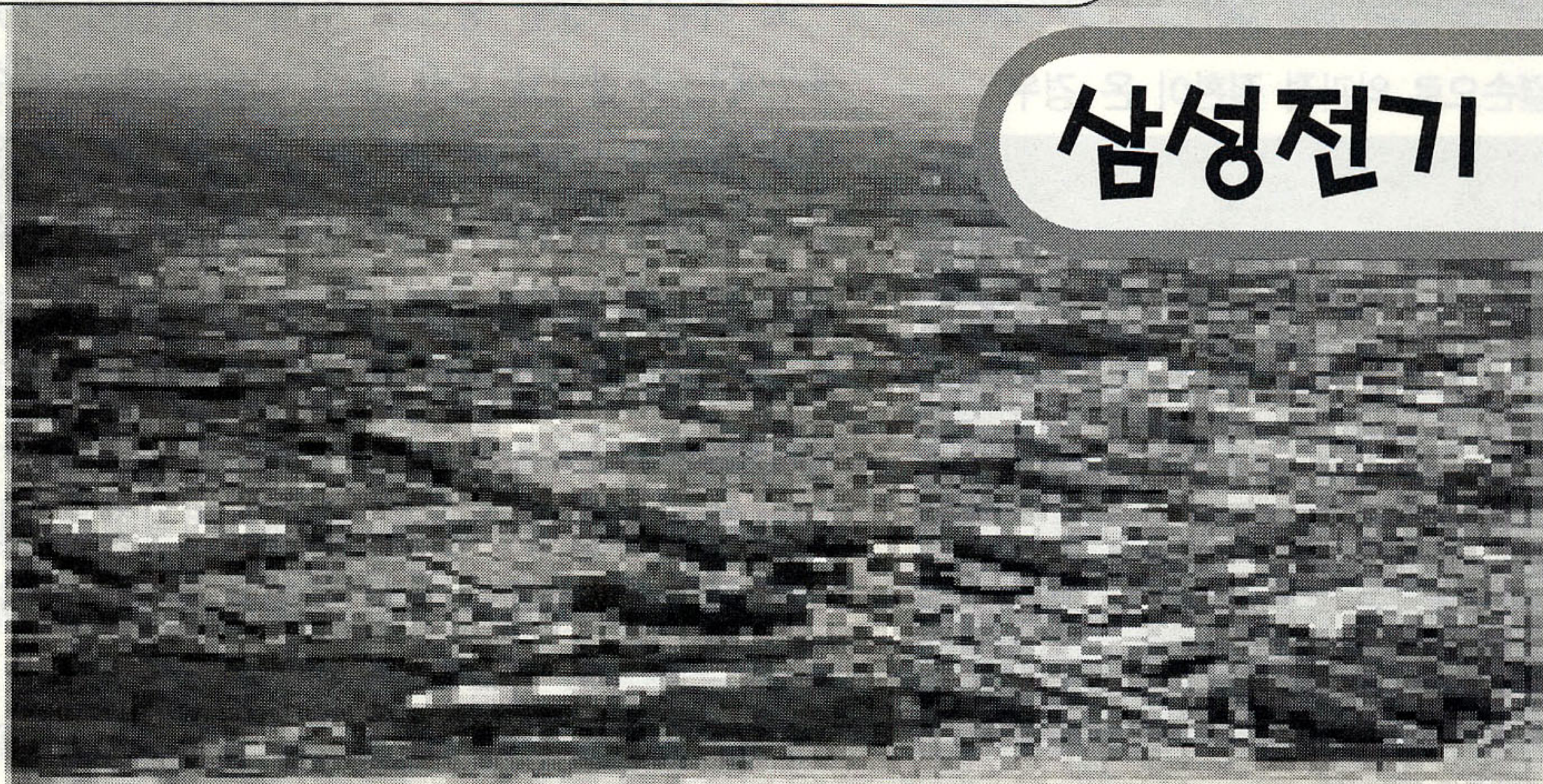


세 트에 생명의 혼을 불어넣는 종합부품 메이커로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전자부품 수출의 전초기지로 명실공히 21세기 Digital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유수의 종합전자부품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서울 동부지부의 추천으로 찾게 되었다.

산포관리(production dispersion)와 싱글(100만개 중 10개 이내의 불량)ppm을 달성하여 초일류 품질보증체제를 확보하였으며, 해외선진기술 보유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핵심 기술을 추구하는



삼성전기 수원

반경희 / 교육홍보부 과장

◆ 회사 개요

1973년 창립 이래 첨단부품 전문 메이커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는 삼성전기는 21세기 세계 초일류 종합부품 메이커로의 도약을 위해 이동통신부품, 컴퓨터 부품, 소재/범용부품, 광박막(optical and thin film)부품, AV부품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MLB, 칩부품, 이동통신부품 등의 전략사업을 World best로 육성해 나가며,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추세인 경박단소화(가볍고 얇고 작게 만드는 기술), 다기능화, 고밀도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반기술인 RF(고주파)기술 등을 바탕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터넷 제품을 향후 회사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다각화와 함께 생산공정의 균일한

◆ 일반사항

경기도 수원시 매탄3동 삼성공업단지에 자리잡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은 대지면적 59,273평 위에 건축면적 24,870평,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47개 건물이 1, 2단지로 구분되어 연면적 74,941평으로 설치되었다.

모든 공장 건물의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96년 이후 신축건물은 물론 기건축된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자동소화설비 설치율 95%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설치된 소방시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수동식소화기 3,320개, 옥내소화전 441개소, 옥외소화전 70개소, 가스계 소화설비 총 약제량 15,650kg, 스프링클러 밸브 90개소 헤드수 23,733개이며, 경보설비는 D-MUX3000형 수신기 2대에

중계기 49대가 운영되고 있고, 공장 전체를 총괄하는 옥내·외 및 건물별 비상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피난설비 및 비상조명 등을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소방훈련시 이용하고 있었다. 방재센터는 25평 정도의 공간에 소방관련 전 시스템을 양방향 통신으로 컨트롤하며, 소방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화된 시설관리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방화관리를 위해 전문관리 임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의 소방안전관리요원이 생산라인 직접관리 인력과 STAFF 인력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수원사업장의 자위소방대 인력은 6,200여 명에 달하며 내부규정에 의거 방화지구 순찰은 물론 자위소방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방소방학교에 위탁, 정기적으로 화재진압 실전교육을 이수하고 현장화재진압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참가자의 교육열도 매우 높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삼성전기 녹색경영그룹만의 소방차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대용량 스피커를 탑재한 소방차량 안에 방재요원 1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복과 소화기구를 상비해 놓고 비상시 즉각 출동하여 비상방송과 함께 신속한 방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은 삼성전기만의 것이라고 자량이 대단하였다.

◆ **화재예방관리의 업무**

화재예방관리에 대한 각 회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겠지만 삼성전기의 경우 중요한 원칙 몇 가지가 있다 한다.

첫째, 능동적인 예방관리이다.

소방법에 준한 소방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문가의 위험성분석에 근거한 소방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예방관리만이 최고의 화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둘째, 뼈아픈 경험은 철저히 분석하여 응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금까지 겪은 크고 작은 사고는 곧 중요한 Know-How로서, 이런 경험을 면밀히 분석·관리하여 동종의 사고예방은 물론 유사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철저한 사전안전조치이다.

시장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전자부품업의 특성상 단시일에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위험성평가와 예방관리는 이런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 **삼성전기 방화관리 자랑**

올해 삼성전기 안전관리부서 최고의 히트작은 납땜용 “불연성 플럭스(FLUX)”의 개발이라 한다.

FLUX는 전자제품을 만들 때 납땜 전에 작업할 부위를 세척하는 물질로 납땜부위가 끊어지거나 납고드름이 생기는 불량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FLUX는 높은 화재위험성과 함께 유독성물질로 구분되어 특별관리를 해왔다. 이에 방재관리 차원에서 비휘발성, 비유독성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 1여 년만에 “NFV FLUX”라는 신물질을 개발, 특허출원하고 새천년부터 생산판매한다고 한다.

또한, “재해에 강한 공장 만들기”라는 모토로 추진한 “소방시설 전산화관리시스템” “삼성전기 위기대응시나리오”, “체험식 소방훈련” 등은 국내·외적으로 방화관리의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녹색경영그룹이라는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안전과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설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와 이런 회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밝고 활기찬 모습의 녹색경영그룹의 요원들이 있는 한 이 회사는 끝없이 발전해 나가리라는 확신이 들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